



국토교통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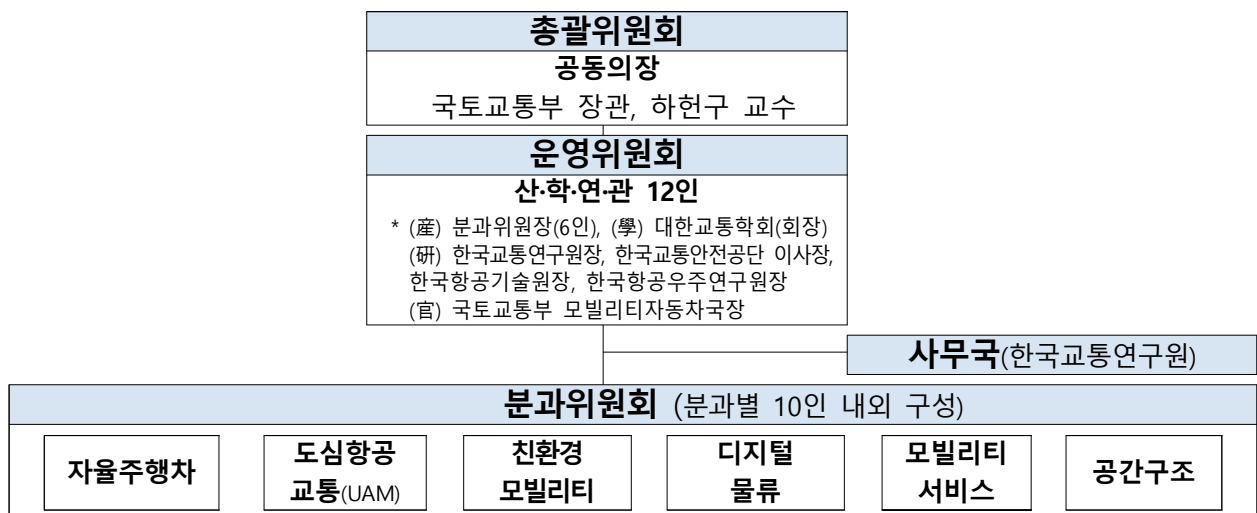
배포 일시	2023. 2. 27.(월)			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	책임자	과 장	심지영 (044-201-3835)
	모빌리티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임유현 (044-201-3838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모빌리티 대표 플랫폼 『모빌리티 혁신 포럼』 출범

- 산·학·연·관 함께 모빌리티 미래 비전 공유하고 혁신 전략 세운다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모빌리티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산·학·연·관 약 8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「모빌리티 혁신 포럼」(의장: 국토교통부 장관,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)을 출범한다고 밝혔다.
- 본 포럼은 지난해 6월부터 민간 중심으로 구성·운영해 온 ‘모빌리티 혁신 위원회’를 학계, 공공기관, 연구기관 등도 참여하는 포럼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,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·관 합동 전략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모색하기 위한 소통채널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.

< 모빌리티혁신포럼 구성 >



* UAM분과는 UTK(Uam Team KOREA)활동으로 같음

- 포럼 의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으며, 분야별 논의를 위해 자율주행차, 도심항공교통(UAM),

친환경모빌리티, 디지털 물류, 모빌리티 서비스, 공간구조 6개 분과를 구성하였다.

<분과별 주요 논의 주제>

자율주행차	자율주행 기술 동향, 안전·보험 제도 마련, 인프라 구축 전략 등
도심항공교통(UAM)	UAM 기술 동향, 안전성 확보 방안, 항공 모빌리티 통합 관리체계, 산업 생태계 지원 전략 등
친환경모빌리티	배터리 성능·안전 향상 방안, 안전기준 고도화 방안,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략 등
디지털물류	기술 동향, 물류 인프라 확충, 데이터 관리 전략 등
모빌리티 서비스	첨단기술 융복합, 수단간 연계를 통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관련 규제개선, 신·구 산업 간 상생 발전 전략 등
공간구조	모빌리티 시대와 도시·건축·주거 등 공간 구조 관련 제도 간 정합성 검토·개선 및 모빌리티 도시 조성 전략 등

- 또한 원활한 포럼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장과 대한교통학회장, 한국교통연구원장,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, 한국항공기술원장,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,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등 산·학·연·관 12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,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.

□ 포럼은 매월 분과활동을 통해 분야별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 할 계획이며, 분기별 전체회의를 통해 분과 활동의 성과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.

- 또한,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관련 기준 등 제도 마련, 규제개선, 기술개발(R&D) 등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이날 출범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글로벌 모빌리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산·학·연·관이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” 라면서 “공공의 지원이 늦어서 민간이 계획한 기술개발,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포럼을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해나가겠다” 고 밝히며 포럼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.

- 특히, “국제 컨퍼런스 개최, 선진국 및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갈 것”이라며 포럼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.
 - 이어진 하헌구 공동의장의 환영사와 국회 최인호 국토교통위원의 축사에서도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민·관이 함께 소통하는 채널을 만든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포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.
- 한편, 현대자동차 송창현 TaaS(Transport as a service) 사장이 ‘이동의 자유, 시장 지향의 서비스’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.
- 이어진 산·학·연 기관의 자유토론에서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이 민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소통 창구가 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포럼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.
- 「모빌리티 혁신 포럼」은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모빌리티 전략 논의를 본격화한다. 특히, 출범 첫 해로서 민간 기업, 국회, 지자체, 국제 협의체 등과의 협력 모델을 강화하며 모빌리티 대표 플랫폼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.